



# 국제경제리뷰

조 사 국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  
최윤철 과 장(5267)

## 홍콩·대만·싱가포르의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 ◆ 홍콩·대만·싱가포르 3개국은 다른 신흥국들과 비슷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경기 급락과 빠른 회복을 거친 후 2011년부터 성장세 둔화를 지속하다가 2013년 들어 완만하게 개선
  - 2013년 들어 3개국은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이라는 공통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홍콩에서는 견조한 민간소비 지속이, 대만에서는 고정투자의 증가 전환이,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지출 확대가 각각 성장을 뒷받침
- ◆ 2014년 들어 홍콩·대만·싱가פור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내수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다만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한편 이들 국가에서는 부동산가격 상승 완화(홍콩),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대만), 외국인고용 규제(싱가포르) 등이 각각 주요 현안사항으로 부각
  - 이와 관련하여 홍콩은 부동산 거래시의 세금을 인상하고 대만은 ASEAN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확대 및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의 조치를 실시

### I

### 머리말

- 홍콩·대만·싱가포르 3개국은 다른 신흥국들과 비슷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경기 급락과 빠른 회복을 거친 후 2011년부터 성장세 둔화를 지속하다가 2013년 들어 완만하게 개선(전체 신흥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시현)

###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세 계 <sup>1)</sup>	-0.4	5.2	3.9	3.1					3.0 <sup>e)</sup>				
신흥국 <sup>1)</sup>	3.1	7.5	6.2	4.9					4.7 <sup>e)</sup>				
홍 콩 <sup>2)</sup>	-2.5	6.8	4.9	1.5	0.7	0.9	1.5	2.8	2.9	2.9	3.1	2.8	3.0
대 만 <sup>2)</sup>	-1.8	10.8	4.2	1.5	0.5	0.1	1.3	3.8	2.1	1.4	2.7	1.3	2.9
싱 가 포 르 <sup>2)</sup>	-0.8	15.7	6.0	1.9	1.7	3.3	0.4	2.2	4.1	0.6	4.2	5.8	5.5

자료 : 1) IMF WEO(2014.1), 2) CEIC

배부처 :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부총재보, 경제연구원장, 외자연구원장

- 이들 국가는 전체 GDP에서 국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홍콩, 대만 등의 순서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및 수입 비중도 높아 중국\* 및 선진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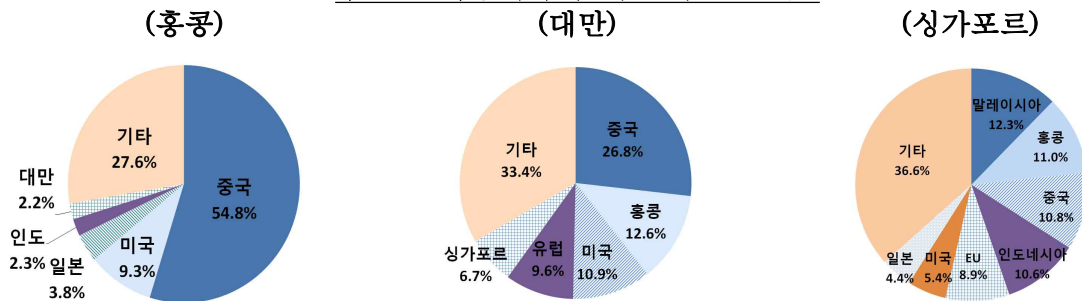
\* <참고 1> 중국과의 경제관계 참조

- 홍콩과 대만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 유럽 등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10% 이상의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유럽, 미국 등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

### 3개국의 수요부문별 비중

	홍콩	대만	싱가포르
국내 부문	99.4	80.5	68.6
(민간소비지출)	65.7	53.3	34.8
(총고정자본형성)	24.8	16.6	23.9
(정부소비지출)	8.9	10.6	9.9
(재고증감)	0.0	-0.2	3.6
해외 부문(순수출)	0.6	19.5	28.2
(수출)	234.0	74.7	221.1
(수입)	233.3	55.0	192.9

###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 비중<sup>1)</sup>



주 : 1) 2012년 기준

자료 : 홍콩 통계처, 대만 경제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 중화경제권\*에 속하는 3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주요 경제현안 사항을 정리

\* 협의로는 중국, 홍콩(마카오 포함), 대만을 지칭하며, 광의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화교경제권을 포함(특히 싱가포르는 국민의 74%가 중국계로 구성)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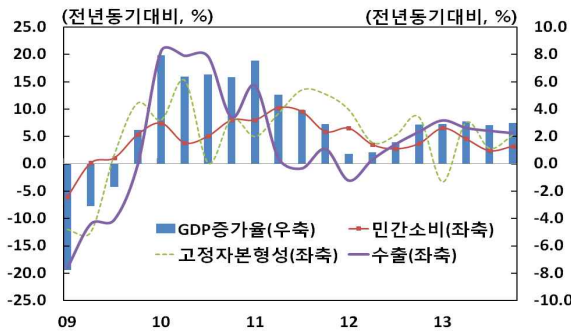
## 경제 동향 및 전망

### 1. 홍콩

□ **(동향)** 2013년 홍콩경제는 민간소비의 증가 지속, 수출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세를 시현

-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1.5%보다 상당 폭 높은 2.9%를 기록
- 소매판매가 하반기 들어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비중이 높은 보석, 시계 등의 귀중품 및 의류를 중심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11.0% 증가

경제성장률



자료 : CEIC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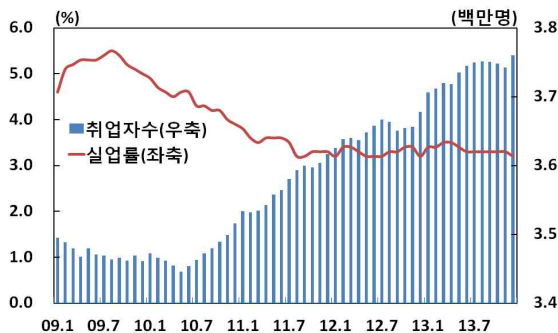


자료 : CEIC

-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실업률이 2011년 이후 3.3%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모습
- 소비자물가는 식품 및 주택물가의 오름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대비 홍콩 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4%대 초반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

\* 식품 : 7.0%(2011) → 5.8%(2012) → 4.4%(2013), 주택 : 7.2%(2011) → 5.6%(2012) → 6.7%(2013)

취업자수 및 실업률



자료 : 홍콩조사통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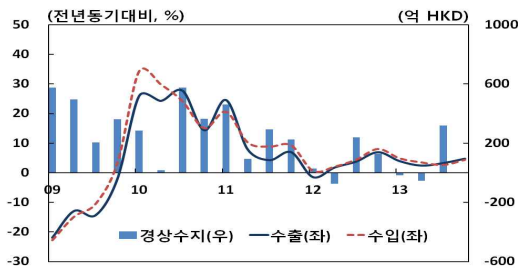
자료 : CEIC

- 한편 수출은 2013년 들어 대중국 수출 둔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의 감소 반전 등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모습

- 다만 서비스 수지가 관광객 증가 등으로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상수지가 상반기중 상품수지의 악화로 인해 적자를 보이다가 3/4분기 들어 상품수지의 개선\*과 함께 흑자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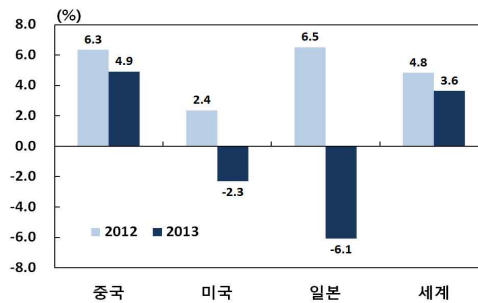
\* 상품수지 적자 축소 : (-)1,502억 홍콩달러(2/4분기) → (-)1,236억 홍콩달러(3/4분기)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 : 1,354억 홍콩달러(2/4분기) → 1,472억 홍콩달러(3/4분기)

####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CEIC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자료 : CEIC

- **(전망)** 2014년 홍콩경제는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을 바탕으로 한 견실한 내수 지속,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

- 소비 및 투자가 고용 증가세 지속 및 기업의 경기개선 기대 등을 배경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최근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개선 응답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악화 응답비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

\* +12%p(2013.4/4분기) → +6%p(2014.1/4분기). (+)는 경기 개선응답비율이 악화 응답비율보다 높음을 의미

- 수출도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의 성장 지속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수출은 관광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홍콩의 관광수입은 GDP대비 11.7%(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관광객수는 중국인 여행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1.7% 늘어난 5,430만명을 기록

\* 여타 국가의 홍콩 관광객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전체의 71%(최근 3년 평균)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은 2013년 들어 16.7% 증가

####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2013	2014
ADB	2013.10	3.2	3.8
GI	2014.1	3.0	3.7
IB 평균	2014.1	3.0	3.5
실적치	2014.2 <sup>1)</sup>	2.9	-

주 : 1) 발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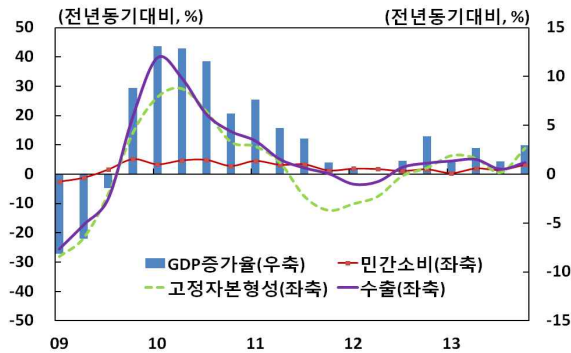
-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잠재

## 2. 대만

□ (동향) 대만경제는 2013년 들어 투자 및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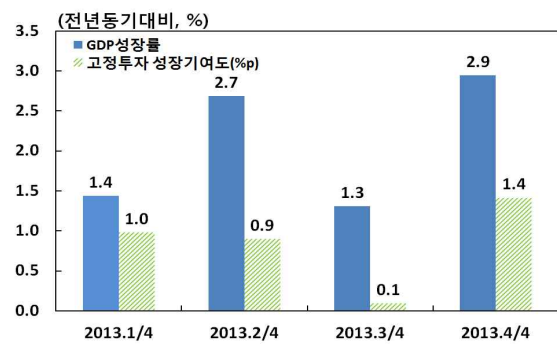
-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정투자 및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전년(1.5%)보다 높은 2.1%를 기록

경제성장률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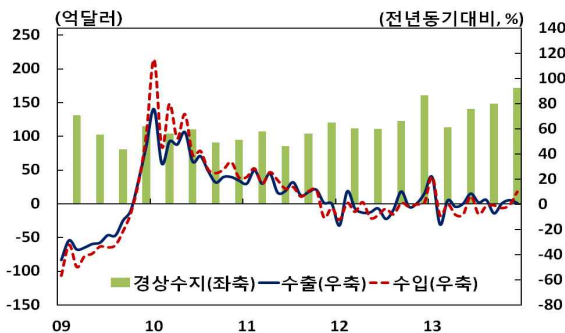
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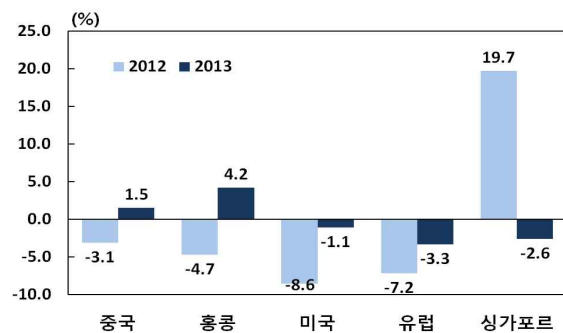
- 한편 수출은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및 홍콩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지속

수출입 및 경상수지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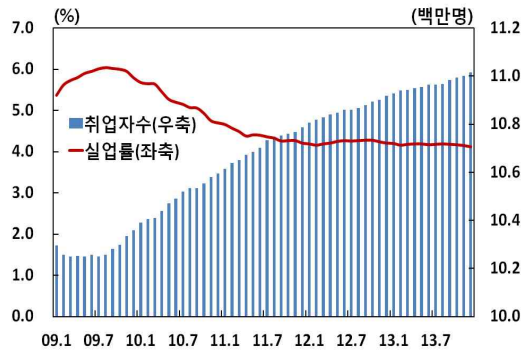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 CEIC

-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확대로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4%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
- 소비자물가는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작황의 호조 등을 배경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3.12월에는 0.3%(전년동기비)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

취업자수 및 실업률



자료 : CEIC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CEIC

□ **(전망)** 2014년 들어 대만경제는 내수 확대 및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소비심리 개선\*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도 대외여건 개선, 자유경제시범구역\*\* 추진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소비자신뢰지수 : 72.8(2013.1월) → 80.8(2014.1월)

\*\* 대만 정부는 2013.8월 6개 항구, 1개 공항, 1개 산업단지를 자유경제시범구역의 거점으로 정하고 1단계로 지능형 물류, 국제의료, 부가가치 농업 및 산업협력을 4대 시범사업으로 중점 추진

○ 한편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이외에도 중국과의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2010.9월 발효), 싱가포르와의 FTA체결(2013.11.7일)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대미 수출은 2013.4/4분기, 대유럽 수출은 2013.3/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2013	2014
ADB	2013.10	2.3	3.3
GI	2014.1	1.8	3.1
IB 평균	2014.1	2.1	3.6
실적치	2014.2 <sup>1)</sup>	2.1	-

주 : 1) 발표시점

○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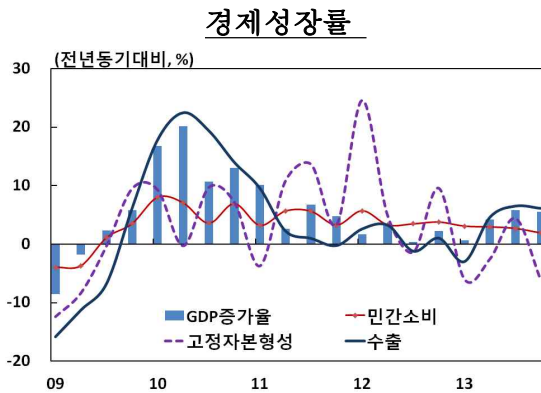
### 3. 싱가포르

□ **(동향)** 싱가포르경제는 2013년 들어 소비 및 고정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확대 및 수출 개선에 힘입어 여타 국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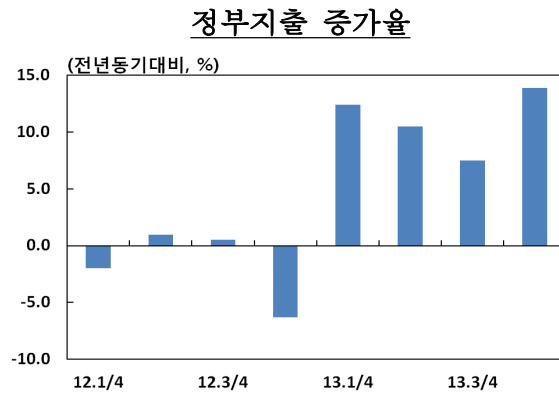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5%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연간 기준으로 전년 수준(1.9%)을 크게 상회하는 4.1%를 기록\*

\* 산업별로는 금융·보험 및 도소매 등의 서비스업(GDP 비중 71%)이 성장을 견인

- 정부지출은 노년층에 대한 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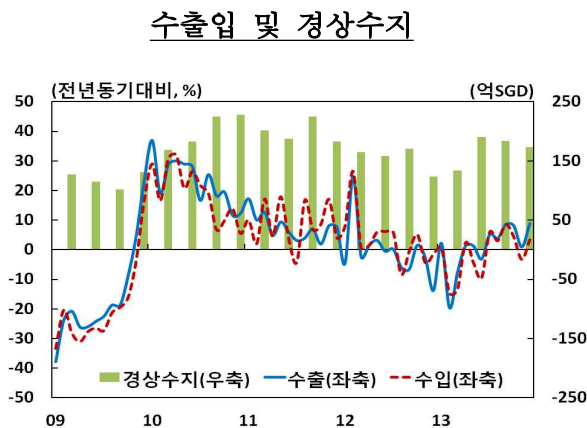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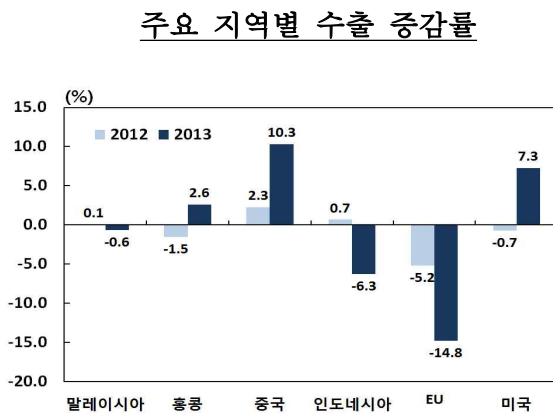


자료 : CEIC

- 한편 수출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지속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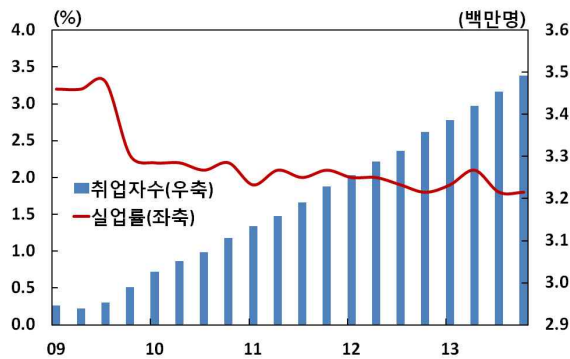


자료 : CEIC

-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건설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실업률이 2%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13.4월 이후 주거비 및 교통비를 중심으로 2%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



취업자수 및 실업률<sup>1)</sup>



자료 : CEIC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CEIC

- **(전망)** 2014년 싱가포르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한 수출 증가, 제조업의 업황 개선 및 금융·보험 및 도소매업 중심의 서비스업 성장\* 등에 힘입어 3%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 0.3%(2012) → 1.7%(2013) 서비스업 2.0%(2012) → 5.3%(2013)

- 다만 주요 수출상대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국인 고용규제에 따른 노동력 공급 차질 가능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잠재

\*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 추진과 인도네시아의 통화긴축에 따른 내수둔화 및 투자심리 악화 등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2013	2014
ADB	2013.10	2.6	3.5
GI	2014.1	3.7	3.4
IB 평균	2014.1	3.6	3.8
실적치	2014.2 <sup>1)</sup>	4.1	-

주 : 1) 발표 시점

### III

## 주요 경제현안

### 1.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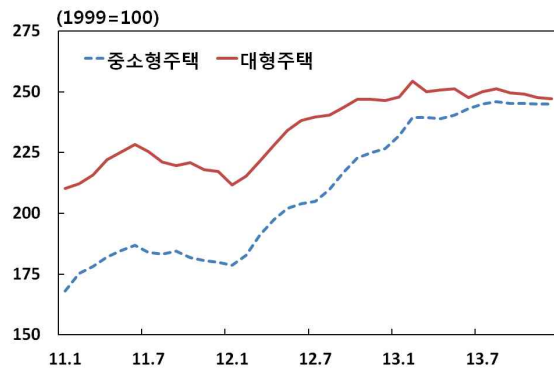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2013.2월)

\* 200만 홍콩달러(약 2억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불하는 인지세를 기존의 1.5~4.25%에서 3.0~8.5%로 약 2배 인상

- 부동산가격 상승이 중산층 이하의 주택구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시 이후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신규대출 증가도 점차 진정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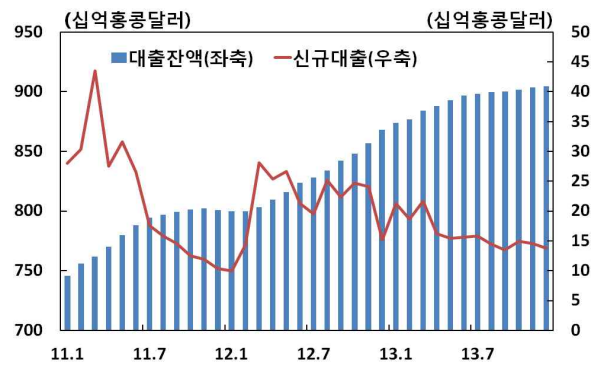
## 주택가격



주 : 중소형주택은 100㎡ 미만

자료 : CEIC

## 주택담보대출



자료 : CEIC

- 전문가들은 금년 들어서도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홍콩 정부는 부동산 버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
  - 금융관리국의 陳德霖 국장은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의 안정국면으로의 진입을 확인한 이후 현재의 부동산대책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2013.11.14일)
- 다만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이 주택가격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홍콩 정부는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부동산대책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가능성

## 2. 대만

- 대만은 수출비중이 큰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여타 수출경쟁국에 비해 통상협정 체결대상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00~08년중 민진당(民進黨) 집권 시절에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이 대만과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정 체결을 반대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가 중남미 일부 수교국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
-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을 배경으로 2010년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미수교 국가인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ANZTEC) 체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수교 국가와 최초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

\* 대만의 대뉴질랜드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0.2%(2012년 기준) 수준

### 대만의 경제관련 협정 체결 현황

협정 상대국	경제협정종류	체결일	발효일
△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2003. 8.21	2004. 1. 1
△ 과테말라	자유무역협정(FTA)	2005. 9.22	2006. 7. 1
△ 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FTA)	2006. 6.16	2008. 1. 1
△ 엘살바도르	자유무역협정(FTA)	2007. 5. 7	2008. 3. 1
△ 온두라스	자유무역협정(FTA)	2007. 5. 7	2008. 7.15
△ 중 국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2010. 6.29	2010. 9.12
△ 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NZTEC)	2013. 7. 1	2013.12. 1
△ 싱가포르	경제동반자협정(ASTEP)	2013.11. 7	..

자료 : RESONA Bank

□ 대만 정부는 향후 ASEAN국가 등 다른 미수교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TPP 등의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도 모색하고 있음

○ TPP가 중국을 배제하는 측면도 내포되어 있는 만큼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RCEP 참가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미·중간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방침

\* 정부는 TPP 참여 문제를 언급할 경우 반드시 RCEP 참가 의지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 2.11 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중국·대만간 각료급 회담에서도 TPP 및 RCEP 참여와 관련하여 중국 측의 이해를 요청

### TPP와 RCEP 비교

	인구(억) <sup>1)</sup>	세계 GDP 비중(%) <sup>2)</sup>	11~15년중 GDP 성장률(%)	타결 목표시한	자유화 정도	주도국
<b>RCEP</b> (16개국)	34	30	8	2015	예외 용인	ASEAN
<b>TPP</b> (12개국)	8	38.4	3	2014	원칙 자유화	미국

주 : 1) 2011년 기준, 2) 2012년 기준  
자료 : IMF

### 3.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국민의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한 불만 고조를 감안하여 금년에도 외국인 고용 억제책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

○ 금년부터 자국 근로자의 임금수준 유지와 고용확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세금을 인상하고 외국인 채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국 근로자의 채용광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 외국인 고용규제 강화책의 주요 내용

조치 사항	내 용
△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선 인하	◇ 자국민 고용확보를 위해 전종업원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최대 고용비율을 인하(2012년 시행) - 제조업(65% → 60%), 서비스업(50% → 45%)
△ 외국인 고용세 인상	◇ 자국민 노동자의 임금수준 유지를 위해 외국인 단순고용자 채용시 고용주가 매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인상할 계획(2014~2015년중 시행)
△ 외국인 대졸 노동자 최저 임금 인상	◇ 대졸 외국인 최저 임금수준(싱가포르 달러 기준)을 월 3,0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인상(2014.1월 시행)
△ 구인 뱅크에 자국민 채용광고 게재	◇ 기업이 월급여 12,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전문직, 관리직, 간부직 외국인 채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국민 대상의 구인 뱅크에 14일 이상 채용광고 게재를 의무화(2014.8월 시행)

- 싱가포르의 경우 그동안 노동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제도를 장기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전체 인구(540만명)의 29%에 달하는 155만명\*까지 증가

\* 싱가포르는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수입

- 그 결과 싱가포르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주거비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

- 향후 그동안 실시된 외국인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갭 축소를 통해 임금상승 압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강점으로 지적 되어온 외국기업의 투자활동\*이 노동비용 상승으로 둔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외국인 간부 및 전문직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 고급인력 유입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도 가시화될 가능성

\* 싱가포르는 2010~12년중 FDI 유입액이 연평균 8.4% 증가(2012년 기준 순유입액은 GDP대비 20.6%를 기록)

### <참고 문헌>

권승혁, 박수연, “TPP 추진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국제경제리뷰 2013-13호, 한국은행, 2013.6월  
 Kotra, “국가정보 - 홍콩, 대만, 싱가포르”, 2013.12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3 Update”, 2013.10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Taiwan : from isolation to integration”, 2013.10.24  
 Global Insight, “Country Intelligence : Report - Hong Kong, Taiwan, Singapore”, 2014.1  
 IMF, “People’s Republic of China-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012 Article Consultation Discussions”, IMF Country Report No.13/11, 2013.1  
 IMF, “Singapore - Staff Report for the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13/328, 2013.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1  
 Japan Research Institute, “Asia monthly”, 2013.12.1.  
 RESONA Bank, “りそな銀行アジアニュース”, 2013.12.2.  
 みずほ総合研究所, “みずほアジア・オセアニア経済情報”, 2014.1월.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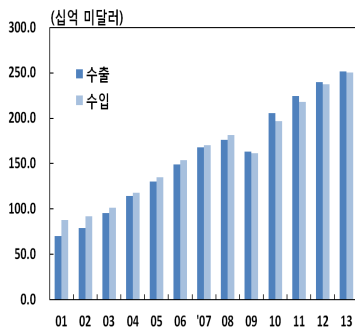
## 홍콩·대만·싱가포르와 중국간의 경제관계

###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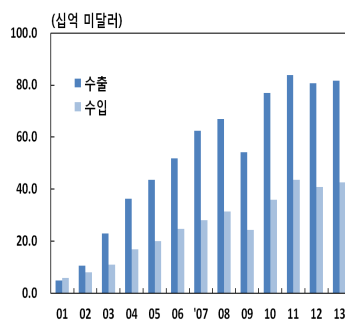
- 홍콩, 대만 및 싱가포르의 대중국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을 제외(대만의 경우는 2009년과 2012년 제외)하고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2013년 기준 수출액을 보면, 홍콩은 2514억달러, 대만은 818억달러, 싱가포르는 484억달러에 각각 달하여 2001년 대비 각각 3.6배, 16.7배 및 9.1배 증가
  -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대만이 큰 폭의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홍콩 및 싱가포르도 2010년 이후 흑자를 시현

### 대중국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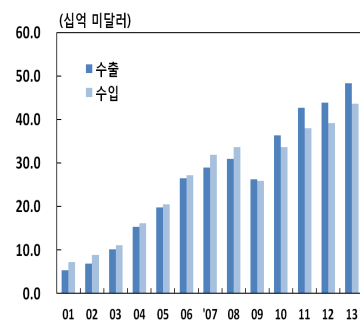
(홍콩)



(대만)



(싱가포르)



자료 : CEIC

### 주요 교역상대국별 비중<sup>1)</sup>

		(%)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
홍콩	수출		2.4	1.6	54.1
	수입		6.3	6.3	47.1
대만	수출	12.6		6.7	26.8
	수입	1.0		3.0	15.1
싱가포르	수출	11.0	3.5		10.8
	수입	0.8	6.7		10.3
중국	수출	15.8	1.8	2.0	
	수입	1.0	7.3	1.6	

주 : 1) 2012년 상품 교역액 기준  
 자료 : IMF DOT, CEIC

- 한편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홍콩(CEPA, 2003), 대만(ECFA, 2010) 및 싱가포르(FTA, 2008)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도 FTA를 체결(2013.11)
  - 중국을 중심으로 한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로 향후 이들 국가간의 교역 및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전망

## (직접투자)

□ 3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도 점차 확대되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의 약 70%(총 827억달러 투자)를 차지(2013년 기준)

○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2007년 이후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 2013년말 기준으로 각각 734억달러(비중 62.4%) 및 72억달러(비중 6.1%)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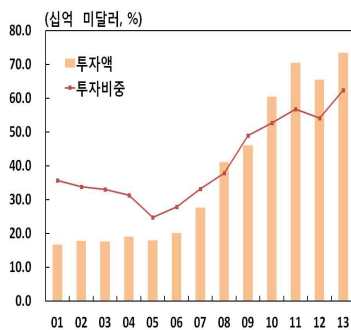
— 홍콩의 대중국 투자 증가는 CEPA협정 체결 후 보충 협정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분야의 개방범위도 확대\*된 데 기인

\* 전통적인 제조·가공 산업에서 인프라 건설, 호텔 기타 관광업, 부동산, 소매업, 정보통신 등으로 투자분야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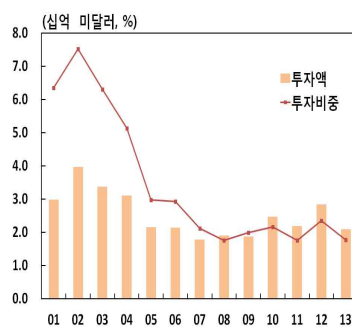
○ 반면 대만은 대체로 20억달러 내외(비중 : 2% 내외)의 수준을 유지

### 3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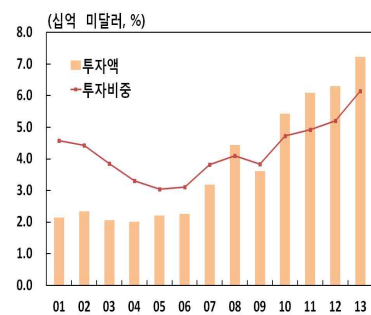
#### 홍콩



#### 대만



#### 싱가포르



자료 : CEIC

<참고 2>

홍콩, 대만 및 싱가포르 개관

	홍콩	대만	싱가포르
GDP(억US\$ <sup>1)</sup> )	3,656	8,943	3,230
1인당GDP(US\$ <sup>1)</sup> )	50,936	38,356	60,799
인구(만명)	718	2,332	540 (중국계 74%)
면적(km <sup>2</sup> )	1,104	36,193 (남한의 1/3)	716
기업환경평가 <sup>2)</sup>	2	16	1
세계경쟁력평가 <sup>3)</sup>	3	11	5
경제자유도 <sup>4)</sup>	1	17	2

주: 1) 구매력평가 기준환율 적용, 2012년  
 2)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4 기준 순위(한국 7위)  
 3) IMD 2013 기준(1위 미국, 2위 스위스, 22위 한국)  
 4) 헤리티지 재단 2014.1월 발표 순위(한국 31위)  
 자료: IMF WEO(2013.10월) 등

<참고 3>

홍콩·대만·싱가포르와 한국간 교역·투자

- (교역) 홍콩, 대만 및 싱가포르는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3개국 수출비중(11.8%)은 제2의 수출대상국인 미국(11.1%)보다 높은 수준(2013년 기준)
- 반도체, 전자제품, 연료, 석유화학제품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활발한 산업내 무역을 반영하여 수입품목도 수출품목과 유사

한국과의 교역(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미달러, %)

	수출	수입	무역수지
홍콩	27,762 (5.0, 4위)	1,930 (0.4, 35위)	25,832
대만	15,702 (2.8, 7위)	14,631 (2.8, 10위)	1,071
싱가포르	22,280 (4.0, 5위)	10,366 (2.0, 14위)	11,914

주: ( )내는 전체 대비 비중, 순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누계기준 3위 및 11위)인 반면 대만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며, 주요 투자분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홍콩, 싱가포르), 제조업(대만,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미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1~9월)	누계 (1962~2013.9)
홍콩	1,566.7	1,271.6	1,558.1	1,476.6	480.4	14,660.3 (6.3, 3위)
대만	24.6	12.1	20.9	8.7	16.0	440.6 (0.2, 47위)
싱가포르	272.7	401.8	1,024.8	307.1	366.4	5,015.2 (2.2, 11위)

주: 투자금액 기준, ( )내는 전체 투자국내 비중, 순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